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4·05 2018 | Vol. 554

교토의 벚꽃(京都の桜)
Photo : HAN MINSUNG_교토_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 EPSON상



Photo :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일한 정상회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대신이 5월 9일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 및 업무를 겸한 오찬회를 개최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첫머리에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거듭 환영하고, 남북 정상회담 직후의 전화회담,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의 파견을 통한 상세한 정보 공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성사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환영하며, 아울러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한이 힘을 모아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나아가 올해는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2. 양 정상은, 일한중 정상회의에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CVID)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미북간 논의의 틀을 통해 북한이 이미 발표한 핵실험·ICBM 시험 발사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뿐만 아니라 CVID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납치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했고,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3. 일한 관계와 관련해 양 정상은, 금년 10월 '일한 파트너십 선언'이 20주년을 맞게 되는 점도 감안해,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을 확인했고, 다가올 10월의 20주년에 대비해 외교 당국 사이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또,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서도 난제를 적절히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앞의 '노동자상'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한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난제를 잘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
4. 끝으로 양 정상은 정상 간 '셔틀 외교'를 계속 실시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루트를 통해 조정해 가기로 했다.

제7차 일한중 정상회의

5월 9일(수) 도쿄 영빈관에서 제7차 일한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참석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대신,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1. 총론

(1) ‘ASEAN+3’의 틀을 떠나 처음으로 단독 개최한 지 10년째인 올해, 약 2년 반 만에 열린 일한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일한중 협력의 현황 및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상회의의 정기적인 개최를 재확인했다. 협력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며 ‘열린, 포괄적인’ 일한중 협력을 위한 연대를 촉진했다.

(2) 남북 정상회담 직후이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는 3국 정상이 모인 만큼, 북한 정세를 비롯해 자유 무역의 추진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 일한중 협력

(1) 3국 정상은, 3국의 협력이 폭넓은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해 일한중 3국 협력사무국(TCS)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 개별 협력 안건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계기가 된 인적 교류를 비롯해 금융, 에너지, 환경, 방재, 정보 통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또, 일한중의 협력을 더욱 ‘열린,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가기로 했다.

(2) 아베 총리는, 지난 10년간의 노력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탐색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한 제1차 일한중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착실한 진전, 투자협정의 발효 및 FTA협상의 진행, 인적 교류의 배증, 직전 일한중 정상회의 이후 개최된 21차례의 각료급 회의, 100건 이상의 협력 프로그램 실시, 일한중 3국 협력사무국의 설치에 따라 일한중 협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제1차 일한중 정상회의로부터 정확히 10년을 맞이해 협력을 위한 새 출발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3. 지역 및 국제 정세

(1) 북한 문제

3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확인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

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안보리 결의에 따라 3국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두 정상에게 조기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하고 이해를 구했다.

3국 정상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걷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 그 노정(路程)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 핵·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일북 평양 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 동아시아 지역 협력

3국 정상은 EAS, ASEAN+3에서의 연대 및 ASEAN 통합에 대해 함께 기여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가겠다는 일본의 생각에 뜻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3) 국제 경제

3국 정상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며, 높은 수준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타결 및 일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의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길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다. 활기찬 일본을 만들어 지역 및 세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4) 전 지구적 과제

3국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추진과 보건 및 기후 변화 등의 분야에서 연대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아베 총리는, 테러, 사이버 범죄, 불법 마약 거래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한중이 일치단결해, 유입 차단을 위한 단속 및 제3국의 대응 능력 구축을 포함한 대책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매도시결연 15주년 이바라키현 가시마시와 제주도 서귀포시



중학생 상호교류사업

가시마시(鹿嶋市)는 도쿄에서 약 80km 떨어진 이바라키현(茨城県) 동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태평양, 서쪽은 기타우라(北浦) 호수와 접해 있다.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인 야마토 조정(大和朝廷) 시대부터 히타치노쿠니 이치노미야(常陸国一之宮)·가시마진구(鹿島神宮) 신사를 중심으로 간토지방의 요충지로 발전해 왔다.

1950년대 후반에 시작한 가시마 임해공업지대 조성에 따라 반농 반어(半農半漁)의 마을이 근대공업도시로 크게 변모했으며, 나아가 1993년 개막한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지역의 축구팀인 가시마 애틀러스가 일약 각광을 받으며, 스포츠 도시로서 일본 전역의 주목을 끌었다.

이곳 가시마에는 가시마진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와 문화, 전통 무예인 고부도(古武道)나 J리그 가시마 애틀러스로 대표되는 스포츠, 태평양 연안의 가시마나다(鹿島灘) 해안, 기타우라 호수와 가시마진구 수립 등의 풍요로운 자연과 가시마항을 중심으로 한 가시마 임해공업지대에서 만들어지는 산업 생산물, 멜론과 소금 양배추(바닷물을 뿌려 재배한 단맛이 나는 양배추), 대합 등의 농수산물과 이를 지키는 사람들, 지역 공동체 등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1995년에 가시마정(鹿島町)과 오노무라(大野村)의 합병으로 탄생한 가시마시는, 인구도 완만히 늘어나 2018년 현재 약 6만 7천 명이다. 겨울은 온난하며, 여름에는 서늘하고 온화한 기후로 인해 이바라키현 동남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확고하다.

서귀포시와의 교류

제주도 서귀포시와 이바라키현 가시마시의 교류는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강영훈 교수가 가시마시의 월드컵 진행 상황 조사를 위해 가시마시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초등학교의 그림과 작문 교류 전시 및 시장의 상호 방문 등을 거쳐 친교를 확대해 왔다.

2002년 2월, 가시마시 방문단이 방한하여 두 시가 자매도시결연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내용 등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두 시장도 회담을 통해 시민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2003년 6월에는 서귀포시 자매도시결연 사전협의대표단이 가시마시를 방문해, 2003년 중에 서귀포시에서 자매도시결연 정식조인을 갖자는 내용을 담은 자매도시결연 의



자매도시결연 10주년 기념교류

향서(가조인서)를 교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년 11월 26일, 가시마시 조인방문단이 서귀포시를 방문해 서귀포시청에서 두 시장이 자매도시결연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바라키현 최초의 일한자매도시, 또 월드컵경기장 소재지 도시 간 최초의 자매도시로서 새로운 교류의 단계를 맞게 되었다.

활발한 스포츠 교류

지금까지 가시마시와 서귀포시는 공적 기관의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류를 해왔다.

이 가운데 2004년도부터 시작한 중학생 상호교류는, 두 시를 상호 방문해 실시하는 홈스테이 등의 체험을 통해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정을 키우고 폭넓은 시야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차세대를 길러줄 인재의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월드컵 개최국의 도시이며 스포츠가 활발한 도시라는



고교생 축구 교류(가시마시 승격 20주년 기념 축구 축제)

공통점으로 인해 수많은 스포츠 교류가 실시되었고 두 시의 스포츠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자매도시결연 15주년

현대는 모든 면에서 국제화가 진행되어 지역 사회에서도 국제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 지고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결정으로 가시마시에도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국제정세에 대응하려면, 많은 시민 여러분이 외국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가시마시와 서귀포시는 자매도시결연 15주년을 맞는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온 교류의 폭을 넓혀 두 시의 발전과 우호 관계 구축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가시마시청 <http://www.city.kashima.ibaraki.jp/>

(집필: 가시마시, 협력: CLAIR, Seoul)



가시마항



가시마진구

Cool Japan!

전하고 싶은 일본의 매력을 찾아



일본 외무성의 'JENESYS 2017'의 일환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선발한 한국의 대학생 71명(인솔자 4명 포함)과 고등학생 72명(인솔자 4명 포함)이 Cool Japan 리포터 자격으로 9박 10일간(대학생 : 1월 23일(화)~2월 1일(목), 고등학생 : 2월 20일(화)~3월 1일(목)) 일본을 방문했다.

대학생단은 '오키나와의 지역산업 · 지역활성화를 찾아서'라는 테마로 오키나와현 요미탄촌(沖縄県 読谷村)과 도쿄(東京)를, 고등학생단은 '전하고 싶은 일본의 매력 발굴'을 테마로 히로시마현 에타지마시(広島県 江田島市)와 효고현 아와지시(兵庫県 淡路市) 및 도쿄를 각각 방문했다.

이들 Cool Japan 리포터의 프로그램 참가 성과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미션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지난 3월 3일(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Cool Japan 리포터들은 이 자리에서 PPT,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고 느낀 일본의 매력을 발표했다.

- 9박 10일간의 일정을 포함한 성과보고회 모습은 채널 W_오늘의 일본 JENESYS 특집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http://www.chw.co.kr>).
- Cool Japan 리포터가 직접 작성한 생생한 일본 방문 포스팅은 Cool Japan 리포터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일본의 매력을 발견하는 Cool Japan 리포터 <http://cafe.naver.com/youthexchangejpkr>)
- 일본의 다양한 정보와 일본문화원 소식을 전하는 '일본문화원 리포터(4기)' 모집이 6월 1일(금)부터 15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본문화원 리포터가 작성한 포스팅은 일본문화원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blog.naver.com/bunkain>).

유이마루의 정신 : 함께하는 가치를 느끼는 삶

여다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학년

3월 3일, 소중한 인연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9박 10일간의 일정을 정리하고, 우리가 느낀 '일본의 매력'을 어떻게 홍보할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우선, 9박 10일간의 일본 방문프로그램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유이마루'라 하고 싶다. 유이마루란 '이웃을 돕고 어려움을 나누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관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도움을 준 사람에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과 도움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일본에서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 당시 임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을 환영하는 자리에 참석한 일본 대학생, 한국 청년들과 즐거운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동행한 한국어 학습자들, 마치 친자식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홈스테이 가족, 그 밖에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한결같이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 주는 그들을 보며 느낀 점은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유이마루'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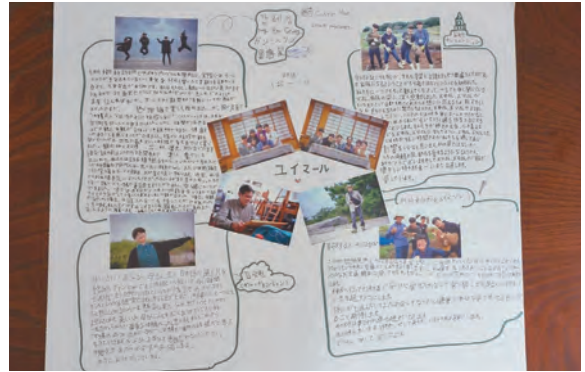


홈스테이집 코스모스 밭 잡초제거 후(필자 정 중앙)

면,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Cool Japan 리포터' 활동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인들처럼 일본인들도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색했고, 불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접해보니 그렇지



홈스테이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을 친절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다정 다감하게 챙기던 모습이 기억난다.

둘째, 양국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일본방문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교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양국 관계는 정상외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민간외교관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Cool Japan 리포터' 같은 양국 교류 프로그램이 확산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역설적이고 간단한 지혜

여유동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3학년

2월의 어느 날, Cool Japan 리포터들은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의 문화와 아름다운 명소를 직접 느껴보고, 일본인과 교류하며, 그 느낌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모두 '일본'에 능숙했다. 일본어는 물론, 일본 문화와 일본인과의 교류도 능숙했다. 우리는 9박 10일간 일본의 다양한 면을 보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의 슬로건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가 가진 힘은 상당하다. 그 일례로서 한번도 일본어로 말해 본 적이 없는 내가, 고작 나흘간



Cool Japan 리포터 9단의 SNS 발신



요미탄촌 다카시호(読谷村高志保) 청년회와 교류

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 가정에서 홈스테이 후, 간단하게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친구는 일본 악기를 배웠고, 많은 일본인 친구와 교류했다. 우리 단원 중 한 친구는 이번 경험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일본 취업을 결심하기도 했다.

Cool Japan 리포터 활동 전에는 어떤 문화나 사상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진 영향력과 전파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최선일까?

공자께서 '불환인지불기지, 환부지인야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

也)'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본을 경험하고 알고자 노력하니, 우리를 만난 일본인들 또한 우리를 알려고 노력했다.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고, 우리와 인스타그램을 교환하고 라인으로 친구를 맺고 싶어 했다. 우리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한국에 전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동시에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알리고 있었다. 문화의 전파는 그런 양방향성을 가진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가 자신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간단한 지혜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내가 마음을 여는 만큼, 상대도 나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내가 상대를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가 더욱더 나를 알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로망에서 힐링으로 이어진 9박 10일 이치고이치에 그리고 나의 목표

김지현 백석고등학교 3학년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9박 10일간의 일본 방문프로그램에 임했다. 우리 Cool Japan 리포터들은 일본의 고교 생활과 가정생활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홈스테이 등 단순 관광객으로는 상상조차 못 할 귀중한 문화체험을 하면서 일본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새삼 그 다정함과 친절함에 감사하며, 나 역시 따뜻한 마음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을 일본에서 일본어로, 그들의 시각으로 해석된 방송을 볼 수 있어 더욱 새롭고 뜻 깊었다.

그리고, 유독 기억에 남는 히로시마의 작은 섬 에타지마(江田島)에서 나를 포함한 3명의 친구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오타니 할머니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치고이치에(一期一会)'를 감



오키나와 청년회에게 배운 지역민속예능 에이사

사해라. 다이아몬드가 아니어도 되니 빛나라'. 평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뜻의 '이치고이치에'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끝까지 빛나라고 말씀해 주시던 홈스테이의 오타니 할머니를 생각하며, 떠나는 배 안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나를 포함한 우리 'Cool Japan 리포터'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떠나기 전에는 솔직히 한국을 향한 비난이나 조롱의 말 등 차가운 시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우리가 10일 동안 직접 보고, 느낀 것은 차가운 시선이 아닌, 일본인들의 배려와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호기심, 친절함이 가득한 따뜻한 시선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한다. 'Cool Japan 리포터' 최종 면접에서 '아직 불확실한 나의 꿈을 찾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번 일본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꿈이 생겼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은 꿈이다. 나는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일본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점심을 하며 교류



쇼후쿠테이 긴페이(笑福亭銀瓶)의 라쿠고 강연

규슈 올레가 있는 돈코츠 라멘의 발상지 구루메시

구루메시(久留米市)는 규슈 북부, 후쿠오카현(福岡県) 서남부에 위치하며, 규슈의 중심도시인 후쿠오카시에서 40km 떨어진 인구 약306,000명의 도시다.

이곳은, 규슈에서 가장 큰 치쿠고가와(筑後川) 강과 동서로 이어진 미노우렌잔(耳納連山)의 산이 빚어낸 아름다운 자연과 온난한 기후 덕에 녹음이 우거졌으며, 비옥한 대지에서는 쌀과 보리 외에 채소, 과일, 정원수와 묘목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후쿠오카현 최대의 농업 도시다.

또, 현 남부의 핵심도시로서 규슈자동차도로와 오이타·나가사키자동차도로의 교차점과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다.

2011년 3월, 규슈신칸센의 구루메역 개설로 인해 규슈지역 안팎으로의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규슈 올레 구루메·고라산 코스

자연과 사계절의 매력을 여유롭게 느끼면서 자신의 페이스 대로 걷는 '규슈 올레' 코스 중 하나인 '구루메·고라산 코스'가 2015년 11월에 개설됐다. 길이 8.6km에 소요 시간 3~4시간으로 난이도 중·상급인 코스다. 거리가 짧은 대신 오르막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볼거리로 가득하다.

‘치쿠고국(筑後国, 옛 지명으로 후쿠오카현 남부) 최고의





신사인 고라다이샤(高良大社)의 역사를 느끼며, 치쿠고 평야의 절경을 감상한다'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사와 고적, 수많은 파워 스팟(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활엽수림, 꽃의 명소, 치쿠고 평야를 조망하는 드넓은 파노라마 풍경, 역사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곳곳에 있다.

봄에는 진달래와 벚꽃, 장마철에는 수국, 가을에는 단풍을 즐길 수 있으며, 사랑의 파워 스팟인 '한쌍의 비쭈기나무 · 사랑의 동백꽃', 이곳을 포함해 일본에 4곳밖에 없는 국가 천연기념물 '맹종금명죽림(孟宗金明竹林)', 소원성취의 신으로 유명한 '오쿠미야(奥宮)', 약 100종 61,000주의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는 '삼림 진달래 공원', 국가지정중요문화재 고라다이샤 등 볼거리가 많다. 시작 지점은 JR큐다이본선의 JR구루메다이가구마에역(久留米大学前駅)이며, 끝인 지점은 그 다음 역인 JR미이역(御井駅)으로 전철은 물론 버스로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돈코츠 라멘의 발상지

오늘날 전세계에서 즐기는 '돈코츠 라멘'은 구루메에서 시작되었다. 1937년 '난킨센료(南京千両)'라는 포장마차가 개점했는데, 이곳 주인이 만든 돈코츠 스프와 수타로 만든 고불고불한 치지레멘(縮れ麺)이 '돈코츠 라멘'의 시작이다. 지금처럼 부연 국물이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이다. 포장마차 '산큐' (三九)의 주인이 요리 중에 가족에게 불 조절을 부탁하고 외출했을 때의 일이다. 늦은 귀가 후에 서둘러 확인했더니 센 불에서 숟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투명했던 국물이 부영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시험 삼아 양념장을 넣어 간을 맞춰보니 놀랄 만큼 깊은 맛이 났다! 이 국물이 인기를 얻게 되었고, 곧이어 규슈 각지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금은 전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시내의 수많은 점포 가운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는 '구루구루 티켓' 사용을 추천한다. 구루메가 자랑하는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티켓이다. 라면





외에 닭과 돼지, 소, 생선 등의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구루메 닭꼬치도 맛볼 수 있다. 주점에서 닭꼬치를 먹고, 포장 마차에서 풍기는 돈코츠 냄새에 이끌려 마무리로 라면을 먹는 것, 이것이 구루메의 왕도 코스다.

일본 3대 술의 고향

구루메는 풍부한 수량과 양질의 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주조가 활발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양조장 수를 자랑하며, 일본 3대 술의 고향으로 불리고 있다. 청주를 비롯해 소주, 혼성주, 와인 등 다양한 술이 갖추어져 있다. 새 술의 계절인 2월에는 매년 약 11만명이 모이는 규슈 최대의 일본 술(니혼슈) 이벤트 '조지마 사카구라 비라키'가 개최된다. 여러 술도가에서 갓 출하한 술을 구입해 서서 마시는 스타일의 '가쿠우치' 코너와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노천 시장 등에서 술과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최근에는 해외에서 온 손님도 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만발하는 도시

‘세계인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라며, 브리지스톤의 창업자인 이시바시 쇼지로(石橋正二郎) 씨가 구루메시에 기증한 문화, 예술시설 ‘이시바시 문화센터’에서는 매화, 동백, 벚꽃, 장미 등 계절마다 꽃 축제가 개최되며, 철 따라 색을 바꾸는 정원에는 미술관, 이시바시 쇼지로 기념관 등이 있어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의 동백나무 약 150종 160그루를 수집, 전시해 놓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의 동백관’, 시화(市花)로 사랑 받는 구루메 진달래 외에 약 1,150종 20,000그루의 전 세계 진달래가 만발하는 ‘세계 진달래 센터’ 등 다양한 명소가 있다. 또 철 따라 표정을 바꾸는 미노우렌잔산은 정원수 산지로서의 차별화된 맛을 느낄 수 있다.

구루메의 전통과 현재, 축제와 행사

구루메에는 전통 깊은 옛 축제부터 꽃과 음식을 즐기는 지금의 행사까지 사시사철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축제와 행사가 개최된다.

1600여년의 전통을 지닌, 일본 3대 불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가중요 무형민속문화재 ‘오니요(鬼夜)가 매년 1월 7일 열리는데, 큰 횃불에서 떨어지는 불뚝을 맞으며 무병 무탈을 기원한다. 매년 8월 5일에는 서일본 최대급인 ‘치쿠고가와강 불꽃놀이대회’가 개최된다. 큰 원과 다양한 모양의 멋진 불꽃이 지쿠고가와 강에 반사되어 비치는 환상적인 풍경에 하천 둔치를 가득 메운 군중이 도취된다.

(집필 : 구루메시, 협력 : CLAIR, Seoul)



일상에서 접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사인 모리카와 히로토(モリ川ヒロト) 씨의 영상전이 '가나자와 현재 몽환'이라는 타이틀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본지에서는 전시 개최를 위해 방문한 모리카와 히로토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東アジア文化交流使」とは何ですか。また、ソウルで展示会を開催す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は。

東アジア文化交流使とは、日韓中文化大臣会合の場で合意され、各国が決定した文化交流使を互いの国に派遣し、文化を紹介し合い、交流することを目的に作られたものです。私の場合は、私の作品がこの事業の趣旨に向いていると思うので話を聞いてみたいと、文化庁の選定委員会から連絡をいただいたことがきっかけでした。日本のみならず世界中に自分の街の魅力を伝える仕事ができればと普段から思っていたので、嬉しい気持ちで引き受けました。

韓国で私の作品を披露したのは今回が2回目で、一昨年にCOEXの「韓国工芸トレンドフェア」に出品しました。その案件をオーガナイズしてくれた韓国の方と親しくなり、今回の展示先としてソウルを選びました。また、前はあまりソウルに触れずに

「동아시아 문화교류사」란 무엇인가요. 또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사란, 일한중 문화장관회의에서 합의되어 각국이 결정한 문화교류사를 상대국에 파견하여,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경우는, 저의 작품이 이 사업 취지에 적합하니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문화청 선정위원회의 연락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우리 마을의 매력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평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맡았습니다.

한국에서 제 작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재작년 코엑스의 '한국공예 트렌드페어'에 출품했었습니다. 지난번, 서울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서울의 새로운 거리뿐만 아니라, 옛

帰ってしまったのが非常に残念でしたので、今回はソウルの新しい街だけでなく古い街にも行ってみ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く、ソウルで展示会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今回、どのような作品が紹介されましたか。

金沢は、芸妓の稽古場や300年以上前の屋敷が並ぶ街や公園といった観光名所ばかり注目されがちですが、金沢の真の魅力はそこないと常に思っていました。住民たちは芸妓の稽古場はもちろん、古い屋敷や公園を毎日のように通ったりもしません。私は日々の生活の中で目にする一瞬の風景こそ、金沢の一番の魅力であると思います。最近、東京と金沢をつなぐ新幹線が開通し、観光客が増え続けていますが、今のうちに金沢の本当の魅力を紹介しておかなくては、消えてしまうおそれがあります。自分が知っているこの街の魅力を紹介す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良いのかを悩み続け、今回の作品を作りました。いわゆる観光目線で見た金沢では全くなく、名もない普通の路地や坂や橋といった金沢の「日常の細部や一瞬に宿る美や趣」を紹介しています。

いつから日々の生活の中で目にする一瞬を映像や音楽を用いた作品として描くようになりましたか。また、写真や映像を撮る瞬間はいつですか。

大学の時から東京に出てくるまでは、金沢の魅力をあまり知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東京に行ってみると、自分にとっては金沢の街の方がより魅力的であることに気付き、そこから自分の街の魅力について考え始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海外に行っても、金沢には独特の魅力があると感じます。そのように20〜30年間考え続けてきたものを写真や映像に収め

거리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작품이 소개되나요.

가나자와는 게이샤 연습실과 300년도 더 된 저택이 늘 어선 거리와 공원 같은 관광명소만 주목 받기 십상이지만, 가나자와의 진정한 매력은 거기에는 없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게이샤 연습실이나 옛 저택과 공원을 매일처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일상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한 순간의 풍경이야말로 가나자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쿄와 가나자와를 연결하는 신칸센 개통으로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가나자와의 진정한 매력을 소개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 염려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을의 매력을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면서, 이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관광 차원에서 바라본 가나자와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평범한 골목길과 언덕, 다리 같은 가나자와의 ‘소소한 일상과 한 순간에 머무는 아름다움과 정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순간을 영상과 음악을 이용한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었나요. 또, 사진과 영상을 찍는 순간은 언제인지.

대학 때부터 도쿄로 나올 때까지는 가나자와의 매력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쿄에 오고 나서, 나에게는 가나자와가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마을의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ています。そして、私は作曲家でもあります。2011年からは自分の音楽と映像、写真を組み合わせた作品を作り始めました。この方法が1分でも5分でも関係なく、最も効果的に伝わるし、言葉の垣根を超えて金沢の魅力を感じられるからです。私はわざわざ「何かを撮りに行く」ということはしません。常にカメラを持っていて、日常生活の中で撮りたい気持ちが湧いてきた時にシャッターを押しています。

作品を眺めていると現実で受けた緊張やストレスから逃れ、まさに自然と都市の一部になったような気持ちになりますが、モリ川さんが作品を通じて伝えたいメッセージは何ですか。

作品を通じて金沢の魅力を知ってもらい、ぜひこの街に足を運んでいただきたいです。それと同時に、日常の中に美しいものがたくさんあるという目線とその瞬間を味わう心構えに、自分の作品を通じて気が付いてくだされば幸いです。

もし「ソウルの風景」を映像として描くのであれば、どのように表現できますか。

日常の視線に入ってくる美しいものを作品にしたいという気持ちを常に持っていますが、韓国でも撮りたいと思わせる素敵なポイント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このインタビューの後もしつくり街を撮影するつもりですが、機会があればさらに長く韓国に滞在して撮影したいと思いました。

今後の活動計画は。

毎年ある仕事を除けば、ほぼ無計画です。その中でも心がけていることは、人との縁やつながりを大切にすることです。人との縁は生きる上でも仕事においても一番の宝物だと思います。自分が常に気持ちをクリアにして人と接していれば、思いもかけない仕事に発展していくと思っているので、明日会う人とどんな話ができるかだけを考えています。

海外に 나가 비교해 보더라도, 가나자와에는 독특한 매력 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20~30년 동안 생각해 온 것을 사진과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2011년부터 음악과 영상, 사진을 조합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이 1분이든 5분이든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지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가나자와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무언가를 찍으려’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일상생활 속에서 찍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셔터를 누르곤 합니다.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현실에서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치 자연과 도시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데, 모리카와 씨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작품을 통해 가나자와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 꼭 방문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상 속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시각과 그 순간을 느끼는 마음가짐을 제 작품을 통해 깨닫게 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만약 ‘서울의 풍경’을 영상으로 담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것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찍고 싶은 멋진 포인트가 많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천천히 거리를 찍을 생각인데, 기회가 된다면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며 촬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매년 있는 일을 제외하면, 거의 무계획입니다. 이 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람과의 인연과 유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살아가거나 일하는데도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항상 마음을 확고히 하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로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만날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2회 일본국제만화상

일본 외무성과 (독립행정법인)일본국제교류기금은 '제12회 일본국제만화상' 응모작을 모집한다. 일본국제만화상은 해외에서 만화문화 보급과 만화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에 공헌하고 있는 만화작가를 치하할 목적으로 2007년 5월 창설되었다. 응모작품 중, 가장 우수한 작품에는 '일본국제만화상 최우수상'이, 우수작 3개에는 '일본국제만화상 우수상'이 각각 수여된다. 이들 수상자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초빙으로 시상식 일정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만화가와의 의견교환 및 출판사 방문, 지방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 6월 15일까지 **결과 발표** 2018년 12월 경

시상식 2019년 2월 경(예정)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10, 284)



제7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참가팀 모집

일본어를 학습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 성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 학생간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7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 예선 심사에서 선발된 5개 팀은 11월 17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되는 본선 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입상팀에게는 외무성이 실시하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 (JENESYS 2018)' 참가 자격 등이 주어진다. 모집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 8월 10일(금)까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사)한일미래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협찬 및 후원 한국일본학회, 수림문화재단,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물산주식회사, 한국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한국마루베니주식회사, 시사일본어학원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3, 120)



이케바나 오히라류 전시회 '아름다운 꽃의 만남'

일본 전통 꽃꽂이 이케바나 전시회가 주한일본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된다. 오히라류 서울 스튜디오 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오히라류 서울 스튜디오그룹 회원 20여 명과 오히라류 도쿄지부 지도자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오히라류의 이케바나 작품을 전시한다. 입장 무료.

일시 및 장소 5월 31일(목)~6월 1일(금),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오히라류 서울 스튜디오그룹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오히라류 도쿄지부

문의 오히라류 서울 스튜디오그룹 010-3749-5734



제15회 일본가요대회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쓰시마시(對馬市),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제15회 일본가요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일본가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음악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6월 2일에는 J-POP, 엔카, 애니메이션 주제곡 등 일본가요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선 무대를 선보이게 되며, 고등학생·대학생 부문, 일반 부문, 엔카 부문으로 나뉘어 상이 수여된다.

일시 및 장소 6월 2일(토) 14: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쓰시마시(對馬市),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후원 주교배대한민국총영사관, (재)쓰시마시국제교류협회, 규슈관광추진기구, (사)부산한일교류센터, (사)부산국제교류협회

문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4~6



‘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수상작품 소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공동주최 및 후원단체, 기업, 기관과 함께 지난 1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제4회 한일 포토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본 콘테스트는 한국 국적자는 ‘일본의 매력’을, 일본 국적자는 ‘한국의 매력’을 테마로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응모하여 우수작품 응모자에게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한 상품을 수여하고 우수작품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했다.

이 행사는 양국 국민이 사진을 통해 상대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문화교류·인적교류 촉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약 4,600명의 응모자가 8,600여점의 작품을 응모했다. 작년도에 비해 응모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응모 작품 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아키타현상 공연을 기다리는 나마하게 / SONG KWANGCHAN



오키나와현상 오키나와를 즐기자~ / PARK MIN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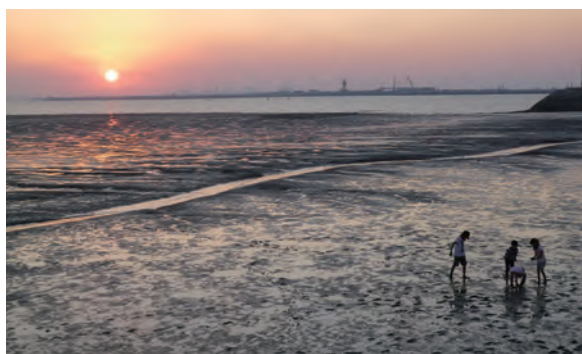
나가사키현상 스와진자의 군치축제 / PARK JUNGSHIN



산인상 요나고의 추억 / KIM JUY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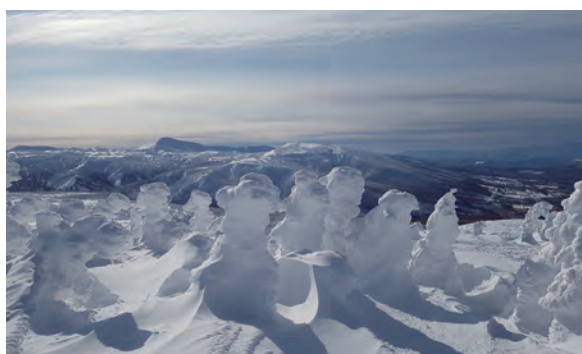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상 영도대교가 올라갔다! / YASUI MIWA



한국관광공사상 서울 근교의 석양 / KOSAKA KOICHI



한국관광공사상 시골문구점 / MIURA HITO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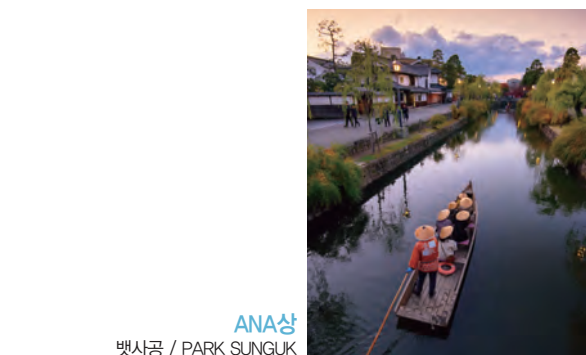
아오모리현상 수빙 / NAM INSEUNG



EPSON상 교토의 벚꽃 / HAN MINSUNG



Nikon상
별빛 아래 후지산 / LEE JUNGJAE



ANA상
벚사공 / PARK SUNGUK



JAL상
같은 바보라면 춤추지 않으면 손해 /
CHOI DAEHAN



Canon상 누구십니까? / UMEMOTO KAORU



INTERPARK상 성찰 / PARK SIMON



금호아시아나상 빛을 향하여 / BAE JINWON



INPAINTER GLOBAL상 철도원 / LEE EUNPYO



CLAIR상 눈은 하늘로 오르고 / JIN WOOSEOK



주한일본대사관상 일본의 가을 / HAN SEUNGYEOP



주한일본대사관상 설산의 붉은 가지 / SEOL YOUNGAH



특별상 늦은 신주쿠역 / EOM JIAE



특별상 도쿄 정글 / LEE JUNHYUN



특별상 춤추는 나고야성 / KIM SANGHAN



특별상 겨울 사이로 / LIM SUNGHACK



특별상 신주쿠교엔의 벚꽃화가 / CHOI BYONGMI



특별상
아오모리에서 만난 모모타로 /
AN HYUNJOON



특별상 가마쿠라 해변의 파도 / KWON KIHUN



특별상 긴린코의 새벽감성 / KIM YOUNGJUN



특별상
기온의 마이코 / KIN DAEWOOK

미치노에키
여행~*
道の駅旅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